

“세계 구석구석 행복한 ‘그림 여행’ 함께 해요”



시즌 IV 앞두고 참여작가 대담



▶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시즌 4에 참여하는 작가들. 앞쪽 왼쪽부터 김해성·박문수·오건규·조근호·신호운·정광희·김효삼 작가.

“당신에게 날아온 따뜻한 그림편지들.” 디지털화된 세상 속,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운 시대다.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손편지 대신 휴대폰 문자 하나로 만족하는 시절이기도 하다.

사는 곳을 떠나면 누군가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어진다. 늘 곁에 있어 오히려 감사함을 잊는 가족에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아름다운 풍광의 여행지에서 스캐치를 하며 현지 모습을 담은 이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다. 화첩에 근사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라면 더 말할 것 없다.

광주일보사 독자들은 몇 년 전부터 화가들이 보내는 따뜻한 그림편지들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이하 그림편지)를 통해서다.

화가들은 아름다운 남도 등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다양한 편지를 보냈다. 근사한 여행 이야기도 있고, 깊은 사유도 있다.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한 고민도 엿보이고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이들도 있다.

시즌 3를 거처한 작가들은 다양하다. 1기 김해성·문명호·문정호·박구환·박종석·오광섭·장현우·정상섭·정성준·조정태·주홍·한희원 작가를 비롯해 2기 강남구·김영태·김해성·류재용·박수만·박태후·백준선·송필용·이영식·전현숙·정용규·최재영 작가가 편지를 띄웠다.

지난 3기에는 강운·김상연·김유섭·김해성·박문준·신양호·임근재·임의진·이

김해성 “그림 그리기 즐거움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어”

박문수 “60년대 한국 다크 라오스 풍경 전해줄게요”

조근호 “파리의 신도시 라 데팡스 차분히 둘러볼 계획”

오건규 “남도산천과 노장사상 버무린 그림 기대하세요”

김효삼 “슬로베니아 동화적인 느낌 화폭에 담아낼 것”

이남·이인성·허진 등 작가 11명이 참여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그림편지’ 4기에는 오건규·박문수·조근호·김효삼·손봉채·정우범·박소빈·신호운·정광희·김해성 작가 등 10명이 참여한다.

연재를 앞둔 지난 12일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림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작가들에게 시리즈 제안이자 터줏대감인 김해성 작가가 이야기를 건넸다.

“어렵게 느끼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은 모든 게 디지털화된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전해보자는 마음에서였어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멋져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즐거움을 신문 독자들에게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새롭게 참여하는 작가들은 하나 둘 독자들에게 띄우고 싶은 ‘그림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문수 작가는 라오스에서 만난 풍경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가 TV에 많이 소개되면서 방비영 등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남쪽 지방은 전혀 다른 풍경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할까요. 그 풍광들과 그곳에 머물며 느꼈던 이야기들을 전해볼까 합니다.”

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조근호 작가는 ‘도시’ 이야기를 전할 생각이다. “제 작업이 다양한 도시의 풍경과 이야기, 사람들을 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눈이 많이 갑니다. 예전에 파리에 갔을 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옛 골목 골목을 다니곤 했는데 이번에는 파리의 신도시라 할 수 있는 라 데팡스를 차분히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광주라는 도시로 편지를 띄우는 것도 색다른 것 같아요.”

가장 연배가 많은 오건규 작가는 남도 풍경에 마음이 간다고 했다. 요즘 노자와 장자를 공부하고 있다는 오 작가는 남도 산천과 함께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의 이야기와 노장사상을 버무린 그림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설치미술을 하는 신호운 작가는 주중 목을 벗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색다른 경험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했다. 신 작가는 북경에 머물 당시 현대화의 물결 속에 중국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을 써볼 생각을 했다.

지난해 ‘그랜드 아트 투어’를 다녀왔던 정광희 작가는 “인프라, 소장품, 주변 환경 등이 어우러진 유럽의 선진화된 뮤지엄들을 보며 자연스레 떠오른 광주의 이야기를 함께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 밖에 김효삼 작가는 가족과 함께 떠났던 슬로베니아의 동화적인 느낌을 화폭에 담아낼 생각이다.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박소빈 작가는 중국 사천 성두 자동차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여는 미술관 개관전 초대작가로 선정돼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 전시를 진행해야 할 예정에 흔쾌히 필진으로 참여했다. 2009년 뉴욕 레지던시에 이어 9년째 외국에서 거주하는 그녀가 고향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도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토드로잉회 회원전 ‘미인도와 숨’

18일~23일

이화갤러리



▶ 박수만 작

“누드 크로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황토드로잉회’ 회원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이화갤러리(동구 중앙로)에서 열린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이화갤러리가 진행하는 첫 번째 기획전이다. ‘미인도와 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다양한 포즈의 누드 크로키 작품들을 선보인다.

드로잉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장르다. 특히 모델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포착해내며 선 하나만으로 수만가지 감정을 드러내는 누드 크로키 작업은 열정 단순한 듯 보이지만 많은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회원들이 포착해낸 모습은 다채롭고 역동적이다. 고민에 빠진듯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린 여자의 모습, 굵은 붓터치로 잡아낸 다이내믹한 포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여인의 뒷모습, 어디론가 달려가는 듯한 여인 등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필과 목탄 등으로 순간의 움직임을 잡아내기도 하고, 채색화로 또 다른 느낌을 전하기도 한다. 김미미·김선희·국막례·김수연·김은아·이시윤·박수만·이현숙·이상남·이영실·조현·최영화·하예지·한남순 작가 등이 참여했다. 전시 초대 18일 오후 6시, 문의 010-2124-3374. /김미은기자 mekim@

한은경 작가 동시집 ‘뽕튀기학교’ 펴내

한은경 동화작가는 날마다 어린이들을 만난다.

자연과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는 일상에서 어린이들을 접하며 느낀 동심을 동시로 표현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인 작가가 이번에 동시집 ‘뽕튀기학교’(도토리숲)를 펴냈다.

“어떡하지!”, “배롱꽃 필 때” 등 모두 50여 편의 동시는 집에서, 여행에서, 어린이집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과 이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맑은 시선이 조화롭게 겹쳐져 있다.

표제시 ‘뽕튀기 학교’는 뽕튀기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학교 학생



들로 대입한다. 육수수 알갱이가 꽃으로 피어나는 장면이 한 편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각각의 작품에는 흥의 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박진주 작가의 그림이 수록돼 있다. 광주 출신의 박 작가의 밝으면서도 따스한 이미지를 보는 맛도 솔솔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학교육연구소 ‘동학으로 읽는 우리 근대’ 강좌

인문학교육연구소(소장 양진호)가 오는 23일부터 ‘동학으로 읽는 우리 근대’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원불교사상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광주시 서구 농성동 무등공방방에서 열린다.

‘동학 전문가’ 박맹수(사진) 원광대 교수와 김봉근 원불교사상연구원 박사가 강연에 나선다. 상반기는 ‘역사를 읽다’라는 주제로 우리 근대의 역사를 살



펴본 뒤 ‘동경대전’을 읽고, 하반기는 ‘인물을 읽다’라는 주제로 ‘해월 최시형’, ‘공초 전봉준’, ‘무위당 장일순’ 등의 삶과 사상을 탐구한다. 2차례의 답사도 떠날 예정이다. 참가비 회원 4만원, 일반 8만원(활동가·취업준비생 50% 할인) 문의 070-8862-6063.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새바늘을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 고개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